

1조2천억 ‘인공태양 연구시설’ 어디로…전남도, 유치 총력전

과기부, 첨단 인프라 부지 유치 공모
핵융합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 거점
전남도·전북도·포항시 등 3파전 예고
11월13일 계획서 접수…내달 말 선정
오늘 김지사 주재 ‘킵오프’ 회의 주목

전남도가 1조2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남도 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포항시도 유치전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11월 말 입지 선정까지 3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지난 15일 가칭 ‘핵융합시설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모를 공고했다. 민·관 협력을 통한 핵융합 상용화 핵심 기술 개발과 첨단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다.

한국형 혁신형 핵융합로 구현 7대 핵심 기술 개발 3천500억원, 핵심 기술 실증을 위한 5대 핵심 연구 실증 기반 구축 8천500억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1조2천억원(추정액)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핵심 연구 실증 기반 구축 사업 부지 선정을 위한 공모로 과기부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유치를 희망하는 11월 13일까지 유치 계획서 접수, 14~20일 사전 실무 현장조사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공모에는 전남도를 비롯해 국가핵융합연구소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를 보유한 전북도, 포스텍 등 다수 연구기관을 갖춘 포항시가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뚝 떨어진 수은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20일 오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긴 옷을 입은 시민들이 몸을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도 8도로 예보되는 등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애리 기자·조영권 인턴기자

으로 전망된다.

‘무한 청정에너지’로 평가받는 인공태양은 태양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모방해 인공적으로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고온의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

연료인 수소 1g으로 석유 8에 맞먹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고 폭발 위험도 적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미래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전략기술로 꼽힌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대학

인한국에너지공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다수의 에너지 공기업이 집적화된 에너지 거점 나주가 인공태양 연구의 최적지라는 점을 앞세워 연구 시설 유치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펼쳐왔다.

나주는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뛰어난 정주환경과 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와 핵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2021~2022년), 인공태양 연구시설 입지 결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022년 7~10

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전략수립 및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기획과제(2024년 11월~2025년 10월) 등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다수의 용역·과제를 추진해왔다.

2024년 1월 전국 최초 인공태양 유치 전담 TF와 같은 해 3월 도·환경·전력·나주시 실무TF를 구성하는 한편, 전남도 인공태양 포럼, 인공태양 자문단 발족, 전남 인공태양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핵융합 연구개발(R&D) 동향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기반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양시원기자

당분간 쌀쌀한 날씨 최저기온 한 자릿수

이번 주 광주·전남은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전남 일부 지역은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화순이 8도로 가장 쌀쌀했으며 순천 8.1도, 진도 8.3도, 영광 8.4도, 나주 8.7도, 광주 8.8도 등이었다.

21일 최저·최고기온은 각각 8~14도, 16~20도로 예보됐다. 22일 최저기온은 조금 더 낮겠으나 최고기온은 오르겠다. 나주·장성·담양·영암·곡성은 최저기온이 5도까지 떨어져 가장 추겠다. 나머지 지역의 최저기온 분포는 6~13도다. 광주·전남 전역의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됐다. 23~24일 최저·최고기온은 9~15도, 20~23도로 비슷하겠다.

평일에 이어 주말·휴일까지 비 소식은 없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광주·전남지역 기온은 북쪽의 찬 공기 유입으로 평년보다 2~5도 가량 떨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영기자

Today

사위기필터 변색 ‘수돗물 불안’ 호소 6면

광주콘텐츠 기업 글로벌 경쟁력 입증 12면

90주년 광주극장, 영화의 오늘을 묻다 15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해야” 촉구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공동성명
“정부재정 분담 50% 이상 늘려야”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20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 전국 시·군의 절반을 넘어섰고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 농가 소득 불안정 등으로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며 “이제 농어촌을 단순

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농민과 농촌 주민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혁신적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구례 등에서 시행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소비 증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청년정착률 상승 등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전남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선정된 6개 시범지역만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지역을 추가 확대하고 지

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화폐·디지털화폐 기반 순환형 지급 체계가 결합될 때 농촌은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국가균형발전과 식량 안보를 위한 미래 전략 투자”라고 사업 확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을 6개 지역에 머물지 말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부담을 낮추고 정부 재정 분담을 50% 이상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진수기자

코스피 3,800선도 돌파…역대 신고가 또 경신

3,814.69…4,000 고지 ‘눈앞’

코스피 지수가 20일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신고가를 또 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연일 거침없는 랠리를 하고 있는 K-증시는 전대미문의 4,000선 고지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65.80p(1.76%) 오른 3,814.69로 장을 마쳤다.

이는 전 거래일인 17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3,748.89)와 장중 사상 최고치(3,794.87)를 동시에 경신했다.

이날 기관은 6천430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천485억원 순매도, 4천86억



20일 서울 증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지수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5.80p(1.76%) 오른 3,814.69에, 코스닥은 16.23p(1.89%) 오른 875.77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가파른 K-증시 상승은 최근 한 달간 6조원이 넘는 외국인 매수세 영향 때

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인 코스피에서 6조2천 557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임재만기자

2025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청정 전남해역
안전한 수산물

2025. 10. 24(금) - 10. 26(일)

목포시 일원(문화예술회관 등)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內

캐치! 티니핑
싱어롱쇼 개막축하공연

2025. 10. 24 14:30~15:00

PERFORMANCE

전라남도 OK! Now Jeonnam